

목포~무안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개통

14억 들여 25개 노선 정류소 안내기·단말기 등 설치

주민들 버스 운행정보·노선 검색 실시간 확인 '편리'

목포~무안 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이 2일 개통됐다. 목포시민과 무안 주민 모두 이들 지역 내외를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정보, 노선검색, 뉴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는 3일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인 '목포~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목포~무안 광역노선 10개 노선과 목포시·무안군 일원 15개 노선 등 총 25개 노선(50.2km)에 정류소 안내기 43개소와 차량단말기 174대, 버스정보센터 1식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단말기를 통해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목포시내는 물

론 목포~무안을 지나는 모든 버스의 도착 예정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단말기에서 버스번호를 선택하면 단순히 버스도착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뉴스정보, 노선정보 검색 등 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폰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대중교통 이용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목포시 버스정보시스템 사이트(<http://bis.mokpo.go.kr>)에 접속해 버스번호를 검색하면 현재 버스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집 앞을 지나는 버스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정류장 이름을 넣으면 그 정류장을 지나는 모든 노선이



정중득 목포시장이 2일 시내 한 정류장에서 목포~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타내고 타고자 하는 노선을 선택하면 그 버스가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 도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안내기를 통해 버스위치, 노선검색, 실시간 뉴스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버스정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시 돌산청사로 이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으로 경남 사천에 있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가 최근 전남 여수시 돌산청사로 이전했다.

3일 국립공원 해양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께 해양연구센터 이전을 마쳤으며 오는 5일 오전 11시 여수시 돌산청사 4층에서 센터 개소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장과 시의회 의원 등 여수시 관계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국립공원연구원장 등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공원해양연구센터는 2007년 8월에 설립된 이후 같은해 12월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릿호'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해양생태계 조사 수행해 유류 오염 모니터링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을 축적한 바 있다.

또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해상~한려해상을 잇는 해양생태축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조사, 수중생태지도 제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해양연구센터는 147t급 연구선 1척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박사급 연구원과 선박운영직 등 총 20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립공원연구원의 50여명 연구자와 4개 해양국립공원의 200여명 직원들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고 있다.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바다의 시대를 맞아 해양연구센터가 해양과학의 도시 여수에 정착함으로써 앞으로 여수 해역은 물론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이끄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해남 소아암 투병 10대에 후원금 전달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본부장 신순철)는 지난 2일 해남군 보건소에서 소아암 투병중인 김모군(10)에게 아가사랑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인구협회 아가사랑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정신지체아, 미숙아,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아, 불임가정 등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또한 매일 넷째주 수요일 '가족사랑 시네마 데이'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 사랑의 날을 알리고 일가정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시네마 데이는 지금까지 15회(1800명 이상 관람)가 진행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여수지역 초등생 대상 화학실험 교실 열어

한국바스프 '키즈랩' 개최...UV 자외선 탐구 실험 등

여수 한국바스프(대표 신우성)가 3일 여수공장 사택 복지동에서 지역사회 초등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바스프의 대표적 글로벌 화학 실험 교실인 '바스프 키즈랩(Kids' Lab)'을 개최했다.

바스프 키즈랩은 1997년 처음 독일에서 선보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고 창의적인 화학 실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화학이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학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체험 학습이다. 국내에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약 3200명의 어린이들이 키즈랩을 경험했다.

이번 여수에서 진행된 바스프 키즈랩은 바스프 임직원이 직접 일일교사가 돼 학생들과 UV 자외선 탐구 실험을 포함해 3가지 실험을 진행했으며, 모든 참여 학생들에게는 바스프 키즈

랩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이 무상 제공됐다. 지난 1997년 바스프 독일 본사에서 처음 시작된 바스프 키즈랩은 2002년부터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태지역의 17개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편 한국바스프는 독일계 글로벌 종합화학 회사인 바스프의 자회사로 지난 1954년 국내에 진출한 이래 국내외 업체에 석유화학, 폴리우레탄, 정밀화학 및 기능성 제품 등 각종 화학산업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씨월드고속훼리, 외국 마케팅 나서

세계 최대 온라인 업체와 제휴...해상여행 활성화

목포~제주항 운항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주)가 외국 마케팅에 나선다.

씨월드고속훼리는 3일 "세계 최대 페리 온라인 업체인 'AFerry'와 온라인 판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국 대형 온라인 페리 유통업체인 이 회사는 전 세계 95개 이상의 주요 페리 해운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 1100개 이상의 페리 경로 정보를 25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는 "외국은 카페리를 통한 해상 여행

이 활성화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언어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던 해상을 통한 제주관광이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업계 최초 철도와 선박을 연계한 KTX 상품 및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 승선절차,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하이테크시스템(큐패스)을 도입해 예약에서 승선권 발급까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



곡성 내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군, 전남도시가스와 사업 추진 협약

곡성군이 3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전남곡성군수, 박철규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시가스는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 늦어도 같은 해 9월부터는 수요처가 밀집된 곡성을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이 3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전남곡성군수, 박철규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전남도시가스는 협약식과 더불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달라며 15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곡성군에 기탁하기도 했다.

/곡성=김계정기자 kjkim@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